나주혁신도시, 첫 전철역 확정… 2030년 경전선 개통 목표

내년 하반기 착공… 2.1兆 투입
1공구 신선 구간 전철역 입지 결정
광주역~부산, 3시간 24분 단축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를 경유 하는 '경전선 신선' 노선과 '첫 전철역 입지'가 확정됐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광주송정~순천~부산'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5년 만에 주요 구간 노선이 확정됐다. 현재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한창이다.

이 중 '광주송정~순천'을 잇는 경전선 121.5㎞는 모두 5개 공구로 나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공구는 '광주송정~나주 다도' 구간으로 쌍용건설이 내년 5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1공구 총연장 45.7㎞ 중 '옛 나주역~혁신도시~다도면 방산

리'를 잇는 신선 구간 18.4㎞ 중간 지점인 금천면 갈산마을 인근에 혁신도시 첫 전철역이 들어선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총연장 121.5㎞에 2조13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완공되면 비전철 단선철도 노선인 광주송정~순천 구간에 시속 250㎞의 'KTX-이음' 6량이 투입될 예정이며 순천까지 소요 시간이 기존 2시간 16분에서 43분으로 크게 감축될 전망이다.

여기에 5시간 45분 걸리던 광주역~부산(부전역)까지는 2시간 21분으로 3시간 24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전선 전철 개통 예상 시점인 2030년 하반기엔 나주혁신도시역에서 열차를 타면 2시간 대에 부산 도착이 가능해져 영·호남 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나주는 경전선 전철 경유에 이어 호남권 최초의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최종 노선 확정을 위해 광주시·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효천역 경유 노선 변경안'을 제출해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나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도시 인근에 경전선 역사가 들어서면 산·학·연 클러스터, 에너지국가산단 등을 중심으로 산업 분야 인적·물적 네트워크 교류 확대로 지역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호남 차별의 상징인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머리글자를 딴 철도로 총길이만 300.6㎞에 이른다. 이 중 광주~순천 구간(116.5㎞)만 유일한 단선에 전국적으로도 구간 길이 200㎞ 이상 4대 간선철도 중에서 나홀로 단선·비전철 구간이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 12월 개통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량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됐다. 삼랑진~마산(40.6㎞)은 1905년, 순천~진주(80.5㎞)는 1968년에 각각 개통됐다.

선로가 낡고 불량해 화물 운송이 어려운데 다 영·호남 물적, 인적 교류의 장애요인으로도 지적 돼왔다.

/나주(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광주시 '5대 신활력벨트' 조성 본격화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벨트
설계용역 착수 등 행정절차 진행
조망대, 산책로, 빛의관문 조성

광주시가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5대 신활력벨트' 사업을 점검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주요 거점에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벨트' '광주천 생태힐링벨트' '광주송정역 활력벨트' '광주역 창업벨트' '효천역 디지털콘텐츠벨트' 등 5대 신활력벨트를 조성하고 있다.

이 중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벨트는 지난해 10월 'Y-프로젝트 기본 구상안'을 마련한 이후 6개 선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용역 착수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 옛 서창포구에 영산강변 자연 생태계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서창 감성 조망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광주천 생태힐링벨트는 지난 2월 두물머리~발산교 캔틸레버 하부에 걷기 좋은 산책로를 조성했다.

또 전방·일신방직 부지와 인접한 서방천의 수량 확보 및 수질 개선과 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을 힐링·여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사업 구체화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광주송정역 활력벨트는 지난 9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사업인 광주송정역 '빛의 관문'을 조성했으며, 광주송정역사를 두 배로 확장하는 증축공사는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으로 내년에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양수녕 기자

부산시-부산글로벌재단, 亞 교류 강화

오는 12일까지 '부산-아세안 주간'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부산-수라바야 자매결연 30주년'과 '부산-프놈펜 자매결연 15주년'을 기념하고, 부산-아세안 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부산-아세안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부산-아세안 주간은 재한 아세안 국가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부산-아세안 이스포츠 글로벌 교류전 ▲주한 아세안 외교단 부산 초청 ▲부산-아세안 주간 기념 토크 3개의 주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주된 행사인 '부산-아세안 이스포츠 글로벌 교류전'은 29일 오후 1시 부산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과 부산 청년들이 아마추어팀을 이뤄 함께 즐기는 참여형 교류 프로그램으로, 부산과 아세안 청년들 간의 활발한 교류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류전은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함께 주관한다.

주요 일정은 ▲개막식 ▲부산-아세안 대표팀 교류전 ▲부대 행사 ▲시상식 등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동절기 종합대책' 본격 가동

경남도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동절기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안전한 일상, 든든한 겨울, 따뜻한 경남'을 목표로 추진된다.

도는 대설·한파·산불 등 자연재해 예방과 감염병 예방, 취약계층 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선제적 대설·한파 대응 ▲동절기 산불·화재 대책 ▲농·축·수산업 재해 예방 ▲동절기 도민 건강관리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등 5대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된다.

경남도는 24시간 재난대응 체계를 가동해 현장 중심의 신속 복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로 결빙과 교통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관리 기관 간 협업 체계를 통해 제설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한다.

또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한파 쉼터로 운영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방풍시설과 온열 의자 등 한파 저감 시설을 확대 설치해 도민의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한파와 대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농업시설 사전 점검, 비닐하우스 행정지도, 가축 재해보험 가입도 확대 강화한다.

저수온 대비 양식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관리해역을 지정해 어장 책임제를 운영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포항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포항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력 논의

주요 금융기관 등과 간담회

포항시는 지난 29일 시청에서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경기 침체,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기관 및 경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정책과 경제동향을 소개하고,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금융환경 조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올해 시는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1114억 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마련한 바 있다.

재원 마련은 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1:1 매칭사업으로 추진했고, 이처럼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전국 최초이자 올해 조성한 금액 또한 전국 최대규모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지역 이모저모

창원시

탄소중립 실천 '기관 표창'

창원시는 경남도가 주관한 '2024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평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 및 기후 변화 관련 우수 시책에 대한 유공을 인정받아 '탄소 중립 생활 실천 분야' 경남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남도 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 생활 실천 홍보 캠페인, 탄소 중립 포인트제 가입률, 탄소 중립 시민 교육 확산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운동 실천 서약, 기후 변화 관련 우수 시책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으며 시부 1위로 창원시가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고성군

도시환경 부문 중소도시 1위

경남 고성군은 지난 29일 부산 호텔아쿠아펠리스 대연회장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도시환경 부문 중소도시 1위 지자체로 선정, 군부에서 유일하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부가 도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고성(경남)=이도식 기자

해남군

첫 치유농업사 3명 배출

해남군에서 처음으로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 취득자가 배출됐다.

치유농업사는 농업과 복지, 건강 분야가 결합된 치유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가로,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복지학, 의료 및 치유 분야까지 폭넓은 지식과 능력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시험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1년 자격증 제도가 도입됐으며, 이번에 해남군에서는 2급 국가자격증을 3명이 취득하게 됐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구미시

올해 최고 기업인·근로자 선정

경북 구미시는 지역 경제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올해 최고 기업인·근로자 4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고 기업인상 대·중견기업 부문은 LG이노텍 문혁수 대표, 중소기업 부문은 탑런토탈솔루션 박영근 대표가 받았다.

최고 근로자상은 김종진 한화시스템 과장, 여성은 엄태리 월덱스 팀장이 차지했다.

수상자는 내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구미(경북)=김상복 기자ksb8100@